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배포 2025.12.3.(수)	보 도 자 료
	담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02)6788-2606

〈민주당 2026년 예산안 국회심사 성과〉

미래를 여는 담대한 투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약속을 담은 2026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지속가능 미래성장 · 국민안전 · 국가균형발전 · 전 국민 포용을 위한 예산 1.2조원 증액 성과

❑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과 국민안전,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어르신·중장년·청년·장애인 등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 1.2조원(지역현안사업 등 제외)을 증액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미래를 여는 선제적 투자: 과학기술 육성 및 기후위기 대응 예산 대폭 증액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한편,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대한민국 리더급 국가과학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율차 강국 도약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 예산 618억원을 반영해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을 250개소 확대하는데 975억원, 사립학교·공영주차장·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118억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예산 110억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가정용 히트펌프 추가 보급 예산 55억원, 노후 재생 인버터 개선사업 지원 확대 및 계통 취약지역내 인버터 전수 조사 예산 13억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2. 빈틈없는 국가 안전망 구축: 재난안보·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가 안보 및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국가 전산망 복구와 이중운용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 3,9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해킹 바이러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예산 1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캄보디아 체류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공관 인력 확충과 경찰 국제공조 및 파견 등을 위한 예산 6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여성의 안전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강력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억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 9억원,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과 민간 아이돌봄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54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노후된 산재병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74억원을 증액하였고 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대응센터와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치 예산 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간부 및 군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 수준의 당직근무비가 되도록 290억원 증액하였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가 지원되도록 3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방위력 개선을 위해 425(R&D) 사업 106억원, 공중급유기 2차 도입을 위한 사업 300억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현장 일선 경찰, 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경찰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12억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경찰이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외근부력조끼 보급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 국가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예산 증액

❑ (수도권) 대도시권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행을 보조하는 사업 예산을 13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을 500억원 증액하여 첨단전략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호남권) KTX-청룡이 하루속히 호남고속선에 증편될 수 있도록 호남고속선 변전소 용량증설 사업예산을 1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 192억원과 AX실증밸리조성(R&D) 57억원, 전북의 피지컬AI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예산 36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영남권) 낙동강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예산 44억원, 보 개방으로 취수와 양수가 어려운 곳에 취양수 시설 48개소를 조기에 준공하는 예산 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충청권) KAIST 부설 과학 영재학교 신설 예산을 94억원 증액하였고,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 기본설계 예산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강원권) 강릉 가뭄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지하수저류댐 추가 설치 예산 2억원, 계단식논·인공습지 설치로 도암댐 용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예산 107억원,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R&D) 예산 11억원, 해수담수화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 전 세대 & 분야를 아우르는 포용 예산

❑ 어르신부터 영유아, 장애인까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촘촘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예산 297억원 증액으로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을 304억원 증액하여 다자녀 및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련 예산 142억원을 증액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돌봄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6억원을 증액하였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R&D) 예산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3개소 확대 예산 637억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156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1억원, 가축위생방역지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 50억원, 중소기업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예산 14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학교예술강사 지원 29억원,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 80억원, 한류 해외홍보관 구축 45억원, 영상 국제협력지원 30억원, 저작권 및 AI 산업 상생협력 지원 20억원, 방한 의료관광 유치 지원 10억원,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4억원 증액으로 문화와 관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3년간 동결되었던 보육교사 수당 2만원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 445억원, 0~2세 영유아보육료를 추가 인상(3→5%) 예산 192억원을 증액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이자립펀드 연구용역 6억원을 증액하여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시행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로당 부식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애아동가족지원 42억원, 장애인활동지원 63억원, 발달장애인지원 70억원,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운영비 지원 25억원 등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로 법정시한을 준수한 예산 통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 힘을 더한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국민의 삶 깊숙이 닿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 12. 3.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